

# 안보 위기인데...국회 2분만에 해산

### 이틀째 국회 파행...한국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거부

### 여야 "명분 없는 보이콧" 비난...11일 박성진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따른 국회 파행이 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이날은 자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었지만 한국당은 이마저 거부했다. 여야는 파행 책임을 놓고 신경전마저 치열하게 벌이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촉은 하지않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반쪽 국회는 전날에 이어 계속됐다. 한국당 의원 전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본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한 채 유보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했고 의원들도 참석했지만 금방 자유당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의장에게 통보했다"면서 "엄중한 시기에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과 국무위원들은 2분도 되지 않아 해산해야 했다. 정의당이 본회의 개의 없이 자리를 마무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전체 회의를 열어, 뉴라이트 역사관 등으로 여론 내부에서 논란이 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1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한국당이 안보 관련 상임위는 제한적으로 참석하기로 한 만큼 오후 예정된 외교통일위원회는 정상 개최됐다.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를 저지하겠다고 이날 오후 청와대를 향한 방문했다. 한국당 의원 80여 명은 이날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간 뒤 영빈관에서 대기했거나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도 만나지 못했다. 당 방송장악저지투

쟁위원장인 김태흠 최고위원은 청와대 경내 별도 장소에서 전병헌 정부수석을 만나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또 오는 9일 서울 도심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말 장외집회를 장외투쟁의 동력을 가능하게 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보이콧의 정당성을 한껏 부연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마당에 안보를 지키는 한국당은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명분 없는 대국민 선동을 정당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사장을 임명한 것은 방송 장악의 일환이 아니었나"라며 "한국당은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보수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이런 정당이 어떻게 안보정당인가. 하루속히 해산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전면적 대여투쟁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오만과 무능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공정성을 외치며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이윤배반의 국정 운영에 신뢰가 생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당 "한국당 즉각 복귀"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즉각 복귀를 촉구하는 피켓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당 "김이수 다음주 표결해야"

### "한국당 오래 못가다려"...동성에 논란에 당내 반대 기류도

국민의당이 5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상황을 마냥 기다려줄 수 없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내주 직권상정 된다면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도 동성에 논란 등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어 국민의당의 표결 방향이 찬반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 아직 불투명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을 오래는 못 기다린다"며 "(전날 국회의장에게 연기를 요청한 시한은) 일주일이라고, 이번 주까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당이 보이콧을 했는데, 다음날 온다고 하면 뭐가 되겠나.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며칠만 북극 명분과 타이밍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 사안에 대한 조급적 협력 필요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한국당으로 인해 다른 국회 일정까지 지체되는 안된다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내주 11일(월요일) 김 후보자 인준안이 직권상정 될 경우 한 국당 없이도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라는

질문에 "그런 것"이라며 "모든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하는 것이 맞겠지만, 다음주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는 12~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함께 상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 표결을 또 기다려야 한다"며 "헌재소장 공백이 200일이 넘었는데, 더 이상 다른 사안과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이수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균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논란이 최근 불거지면서 당내에서 부정적 기류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인 만큼 국민의당 내에서 반대파가 많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동성에 논란으로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원들은 고개 및 신자들로부터 김이수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적게는 수백 통, 많게는 수 천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유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상황)가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 보수 기독교계의 우려도 있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

# 순천출신 정해구, 정부 개혁정책 진두지휘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위촉...現 국정원개혁위원장

순천 출신 정해구(62)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문재인 정부 개혁 드라이브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정 교수는 지난 6월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진보성향의 정 교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적폐 청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개혁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핵심 조타수의 역할을 맡게 됐다. 정 교수는 논리적 토대 위에 합리적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정 교수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완벽히 공유하고 있는 데다 개혁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성 있게 조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적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천 출신으로 명지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에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진

보적 학술단체인 '한국정치연구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으며, 2000~2002년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2002~2004년 한국정치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한국 정치 개혁에 앞장서 왔다.

정 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부와 정치개혁실 연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시스템개혁분과 정치행정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2년 대선 때는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시 민주당의 정치 분야 공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한국당, 대통령 순방 기간 투쟁 일시중단

### 6~7일 방러...8일 재개

정국회 파행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기간에는 장외투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만큼 여야를 떠나 국내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6~7일 이틀간 장외투쟁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다만, 문 대통령 귀국 이후에는 장외투쟁을 다시 이어갈 방침이다.

홍 대표는 12년 만에 거리로 나선 이번 장외투쟁의 두 가지 목표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와 대북정책 수정을 제시했다.

홍 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은 미국 대통령이 할 얘기"며 "한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우산 의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여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공방

### "우리도 핵무장"vs"비핵 원칙"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 NPT 탈퇴와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 등이 현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바탕으로 신중한 대북접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는 강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엄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각종모임·행사·세미나는 지리산 관광온천지구 K호텔에서!

### ★ K호텔의 5대 특징 ★

▶ 깨끗하고 저렴한 객실요금	▶ 넓고 쾌적한 대형 세미나실	▶ 전망좋은 바베큐 시설
▶ 무료로 사용 가능한 노래방 시설	▶ 직접 조리해서 먹을수 있는 식당	▶ 문의. 010-3605-5000